

북 자수공들과 협업 중단 후 ... 함경아 자수 작업의 진화

September 21-22, 2024 | 문소영 기자

Page 1 of 1

Attention!

북 자수공들과 협업 중단 후 ... 함경아 자수 작업의 진화

문소영 기자

함경아 작가는 북한 자수공들과 원거리 협업을 함으로써 소통의 어려움과 일상에 은밀히 작동하는 정치를 다룬 자수 작업으로 유명하다. 그가 오랜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고 진화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유령 그리고 지도’ 전시에서도.

갤러리 K1 공간에서는 2018년까지 이어진 북한 자수공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팬데믹과 남북관계 냉각으로 교류가 끊어지면서 작가가 그전에 북한에서 온 자수에 새

로운 요소를 추가한 신작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중개인을 통해 추상적 도안을 북한에 보내고 도안을 손자수로 만든 결과물이 올 때까지 길게 늘어난 기다림을 색색의 리본테이프로 표현해 둘로 나뉜 손자수 결과물 사이에 배치한 작업(사진)이 인상적이다.

갤러리의 한옥 전시장에서는 마치 자수 위에 눈물이 떨어진 듯 번진 모습으로 직조된 태피스트리 작품을 선보인다. K3 공간에서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화면 같은 모습으로 직조된 면 위에 색색의 선이 분출하는 작품을 전시한다. 디지털 가상현실의 정보와 작가의 아날로그적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이라는 설명이다.

기간 11월 3일까지 장소 국제갤러리



+ 제908호 40판

①